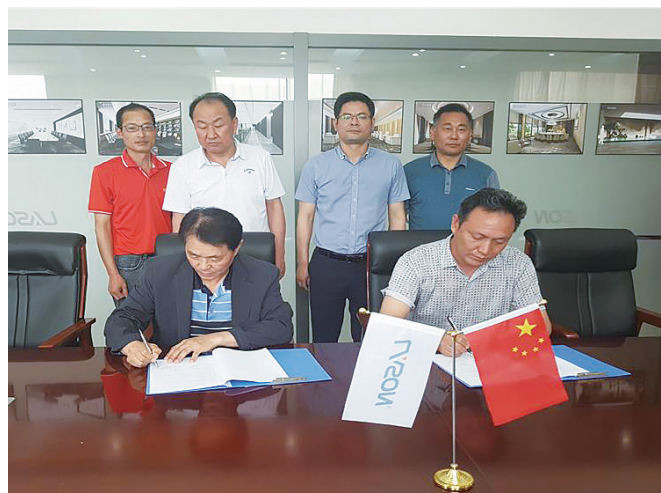


대구환경공단 “한·중 환경사업 활발하게 진행 중”



| 한·중환경기업 기술협의 |



| GE환경건설 및 남필성 최종합의 |

2014년부터 시작된 대구환경공단의 한국 환경기업 중국환경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한·중 환경기업간의 사업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리테크(대표 권진희, 대구시 동구)와 구아화도환보(동사장 강축명, 이상시)는 지난 5월 2일 중국 화동지역 대리점 개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구아화도환보의 사업계획서 제출과 계측기기 전문 기술자 교육(한국 파견)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GE환경건설(대표 김진보, 경기도 포천시)과 남필성(동사장 장위군, 이상시)도 지난 5월 5일 하남성 허창시 화공폐수처리장(12,000톤/일) 오존처리설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6월 14일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였다.

또한, 이상폐수처리장(60,000톤/일)을 운영하고 있는 구아화도환보는 오존시험장비 1세트를 직접구매(구두합의)하여 폐수처리장에서 시험을 진행한 후 수질감소 등의 효과가 있으면 전체처리장에 오존처리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강소박대와의 석유정제폐수 오존처리시험도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평화엔지니어링이 구아화도환보와 장쑤성 패현 프로젝트(음식물 34톤/일 + 오수슬리지 166톤/일) 설계 계약을 진행중에 있으며, 문창과 러성환보의 상수도 저류조 라이닝사업, 국인산업과 중정환보의 위험 폐기물 소각사업, 콘포테크와 하이수환경의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환경공단 중국환경사업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2018년 5월 대구환경공단(이사장 강형신)과 이싱환보과기공업원(주임 주옥봉)의 정기 업무협의 시 중국 이싱시에 입주하는 한국기업에게 환과원이 부과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양 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중기업 방문 시 통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기업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문 통역 인력을 선정하여 지원하자는데 합의를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환경공단과 중국 이싱환과원은 실무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양 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대구환경공단은 대구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중국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기업 등 50여 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기업과 자료를 공유하고, 중국 환과원 역시 자체 심의를 거쳐 40여 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위챗(Wechat)에 등록한 후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우수환경기업으로 선정된 한·중 환경기업은 대구환경공단 홈페이지와 위챗에 등록하여 운영하며 공단과 환과원은 등록된 기업 우선으로 중국환경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 기업 간의 사업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양 기관에서 전문통역원을 2~3명씩 선정하여 통역풀(POOL)을 구축 할 계획이며, 통역 인력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기업은 전문통역 지원서비스를 자유롭게 활용하면 된다. 다만, 통역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중국의 환경정책



'17년 중국정부 및 유관기관은 시장과 경제 수단의 혁신적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저감, 환경 질 개선'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중국 환경보호부 2020년까지 환경경제 정책체제의 목표, 주요임무, 실천로드맵 등을 수립

■ 재정투입과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금 확대를 통한 오염배출 저감

- 중앙재정 확대와 대기 및 수질, 토양오염관리,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금의 확대

○ 농부산물이용 보조 : 비료화, 사료화, 에너지화, 원료화 이용시 보조금 지급

○ 환경세 도입 · 2016년 12월 환경보호세법 통과(기존 배출부과금이 환경보호세로 전환)

· 2018년 1월1일부터 환경보호세가 정식 징수, 기존의 배출부담금은 일괄징지

· 오수처리 비용은 지속 개선하고 여러 지역에서 징수기준 상향조정

○ 탄소배출권 거래 ·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건설방안」이 발표되면서 전국탄소거래 업무 시행

· 현재 전국 30개 성(省)에서 배출권 유상사용과 거래의 시범업무가 전개되고 있으며, 재정부, 환경보호부, 국가발전위에서 비준한 시범지역 12개소 운영 중

중국 우수환경기업 탐방 - 구아화도(이싱)환보유한공사(欧亚华都(宜兴)环保有限公司)



| 구아화도 강축명 동사장 |

구아화도(이싱)환보유한공사는 1984년 중국의 저명한 환경보호 도시인 장쑤성 이싱시 까오청진(高塍镇)에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오수처리, 중수회수, 폐수 슬러지 처리 및 고형폐기물 순환 재이용 등의 분야에 자기자본 투자, 기술, 설비제조, 건설시공의 TURN-KEY SOLUTION을 제공(1급 자격 보유)하고 있으며, '감량화, 무해화, 자원화'의 기본 원칙아래서 환경보호 공정의 설계 및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의 일류 환경보호 기업 중 하나이다.

■ 주요 사업실적

- 햇불 정책사업 등 정부 주도 환경 및 수질개선 사업 참여
- 태호(太湖) 수질 오염 치료사업
- 2008년 북경올림픽 수처리설비 공급
- 2010년 상해 엑스포 및 광저우 아시안게임 수처리설비 공급

■ 수상이력

- 중국 환보산업 핵심기업 선정
- 강소성 첨단기술 기업 선정
- 강소성 신용기업(AAA등급) 선정

■ 기업 자격현황

- ISO9001, ISO14001, OHSAS18001 인증
- 갑급(甲级) 생활오수 및 공업폐수 처리 설계 자격
- 갑급(甲级) 환경오염처리 자격
- 환경공정 전문시공 1급 자격

2017년 말 기준 구아화도의 경영실적은 자본금 USD 10백만달러, 매출액 약 USD 106백만달러, 직원수 520명, 구아화도공정유한공사 등 8개의 자회사가 있다.

구아화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수처리, 대기, 폐기물시장에 대응하고자 한국의 우수한 환경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대구 국제물주간 참석, 우수 환경기업 방문 등 한국기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18년 9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수한 중국환경기업이다.



| 리테크 ⇄ 구아화도 계약체결 |



| 대구환경공단 본부 방문 |

「제21회 산동(청도) 국제 물박람회」 개최



第21届山东(青岛)国际水展

时间: 2018年8月2-4日 地点: 青岛国际会展中心(苗岭路9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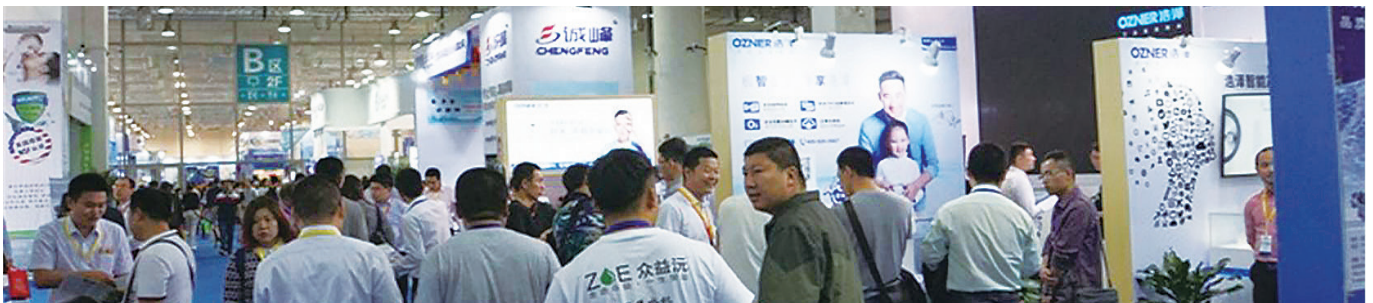
- 终端净水展
- 膜与水处理展
- 泵、阀门、管道展
- 污水处理展



중국 산동(청도) 국제 물박람회가 2018. 8. 2~4까지 중국 산동성(청도) 칭다오국제전시컨벤션센터(靑島國際會展中心)에서 개최된다.

중국 산동 국제 물박람회는 세계 20개국 1,000여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중이다. 박람회 전시장 면적은 38,000㎡이며, 전시분야는 막 처리, 오수처리, 배관, 펌프, 밸브 전시구역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참가분야는 막과 막부품, 여과설비, 정수기 설비 및 부품, 공기정화기, 펌프, 배관, 계측기, 오수 및 슬러지처리 설비, 수처리 약품, 자외선 오존살균, 수처리 및 공정 서비스 등이다. 또한, 전시부스 사용비용은 부스 당(3m × 3m) RMB 8,000위안(약 135만원정도)이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의 우수한 환경기업이 많이 참가하여 환경산업 동향 및 신기술, 신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국 산동성 제남 금낙전람유한공사 담숙군(譚淑君, 전화번호 +86-137-9318-6412, 홈페이지 www.jn-water.com)에게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동(청도) 국제 물박람회 전경 |

대구환경공단 (駐) 중국사무소

| 주소 | 중국 강소성 무석시 의흥시 녹원로 501호 환경과기빌딩 B청사 403실 | 전화번호 | 070-4137-8009

수석대표 이수열 T.+86 186-2606-1134 E.cj1396651@daum.net

대표 김기곤 T.+86 186-2606-1194 E.giraffeland@hanmail.net